

광주 재개발, 대형사에 밀리는 지역건설사

신가구역, 제일-라인·현대-금호 컨소시엄 등 3곳 경쟁 주월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고려개발-대림산업 선정 운암주공3단지 GS·한화 수주...대형사, 인지도 높아 유리

광주지역 주택시장이 활황세에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를 두고 대형 건설 회사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모처럼 잡은 호기를 뱉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감 확보를 위해 소규모 사업이라도 쟁겨하려는 대형 건설회사로서는 회사의 이름을 걸고 수주를 따내야하는 상황이라서 사활을 건 불꽃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개발사업구역인 서구 광천구역과 광산구 신가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형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을 했거나 입찰을 타진 중에 있다.

이달 초 시공사 입찰을 받은 신가구역에는 지역 건설업체인 라인·제일건설사업단과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 롯데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으로 이뤄진 빗고·드림사업단, 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의 노블레스사업단 등 세 곳이 참여했다. 이 재개발사업은 신가동 842의 6 일대 28만 6964㎡에 4030가구(임대주택 416가구 포함)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완택지지구와 붙어 있으며 총 사업비만 8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신가동재개발조합은 오는 3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3개 사업단의 공사비 등 사업 조건과 브랜드 인지도 등을 평가한 뒤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단의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라인

건설과 제일건설은 3.3㎡당 공사비 376만 9000원을 제시했다. 빗고·드림사업단과 노블레스사업단은 각각 399만원과 402만원의 예산을 제시했다.

라인·제일건설사업단은 광주 향토기업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반해 빗고·드림사업단과 노블레스사업단은 대형 건설회사가 참여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천구역 역시 이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 4일까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어서 대형 건설회사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장미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는 광주 토속기업인 모아를 비롯해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 지에이건설·대광건설 컨소시엄 등 세 시공사가 참여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회사로 최종 결정됐다.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이 곳에 1012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18층 아파트 10개 동 총 660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 중 289가구는 일반 분양된다.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실시된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을 GS·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등 대형 건설사 바람이 거세다”며 “업계의 특성상 지역 업체와 대형 건설사 간 견제 양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서 단독으로 시공을 수주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회사가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사업 안정성을 갖는다 것을 지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48.08 (+7.68)
-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1)
- ▲ 코스닥 690.73 (+8.76)
- ▲ 환율 (USD) 1133.80원 (+9.10)

불안한 미래... 돈 안쓴다

1%대 초저금리에도 가계저축 오히려 늘어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는데도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노후 대비 등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저축률의 순저축률은 2013년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6.09%를 기록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쓰인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20%대를 유지했던 가계저축률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1년 3.39%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 3.42%, 2013년 4.90%로, 작년까

지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저축률 증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올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끌린 돈(자금유용)의 증가액은 61조3천억원으로, 1분기의 43조7천억원과 비교해 18조2천억원 늘었다.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0.1% 감소할 정도로 소득 여건은 악화됐는데 가계가 씀씀이를 더 줄이면서 쓰고 남은 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대 중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미래 불안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형국이다.

연합뉴스

엔터빌딩·강진리조트

삼능건설, 매각 결정

삼능건설이 광주 도심 옛 영화관 건물과 강진 리조트 부지를 매각한다.

26일 삼능건설에 따르면 광주 동구 충장로 5가 엔터빌딩을 91억여원에,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강진리조트 부지를 23억여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엔터빌딩은 대지면적 1400여㎡, 연면적 8500여㎡,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과거 엔터시네마 영화관과 패스트푸드점 등 상가가 입주한 멀티플렉스였다.

폐관한 엔터시네마는 1999년 9월 개관해 2002년 5월 증축해 7개 스크린을 갖췄다. 100여대의 주차공간을 보유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접근성이 높고 지하철역으로부터 2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한때 3.3㎡당 6000만원을 호가했던 중심 상업지역으로 현재는 3.3㎡당 1500만원 가량의 땅값을 보이고 있다.

강진리조트 부지에는 30필지(4만㎡가량)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수영장 등을 갖춘 호텔, 별장주택, 정자 전시판매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계획실제, 문화재 발굴조사, 2층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된 구역이다. 강진에는 영랑생가, 다산초당 등 관광자원을 갖췄지만, 아직 호텔이 없는 지역이다.

부지는 월출산 국립공원을 조망하고 질푸른 녹차밭의 경관이 뛰어나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향수, 秋男 유혹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남성 향수 '오 소바주'(eau sauvage)를 선보였다. 이 향수는 할리우드 배우 조니덱이 광고 모델로 발탁돼 주목받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레미콘값 담합 인상' 광주권사업자단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광주권레미콘사업자단체의 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레미콘은 반죽 상태로 운반되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지역 사업자들이 구성된 광주권

레미콘사업자단체는 2013~2014년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 판매단가를 평균 9%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영업책임자 회의에서 판매단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업체들로부터 이 가격을 지키겠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자 '가격 정상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을 돌려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암울한 경제... 성장률 2%대

내년 한국 경제 전망 악화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전세계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치를 모아 매달 발표하는 조사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10월 집계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9%로 제시됐다.

이는 9월의 3.2%와 비교할 때 한 달 만에 0.3%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기

획재정부(3.3%)나 한국은행(3.2%)의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 교역 위축과 제조업의 부진을 반영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9월보다 일제히 하향조정됐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 '컨센서스 이코노믹스' 집계 기준 각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9월에 2.7%에서 10월에 2.6%로 낮아졌고 중국(6.6%→6.5%)과 서유럽(1.9%→1.8%)도 0.1%포인트씩 하향조정됐으며 일본(1.5%→1.3%)은 0.2%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산업 인재양성 우수 사례 시상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모전은 그 동안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훈련생들의 힘든 역경을 이겨낸 사연이 발표됐다. 수상자 사연이 발표될 때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때로는 감동의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학습근로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장고운(㈜동원), 고광태(공우 ENC), 황경자(㈜아이엘에스티) 우수상에는 강민(㈜RTM), 김명진(㈜한국개발), 이철우(㈜유도그룹)가 수상했으며, 참여기업 부문 우수상에는 광산현대서비스(주), ㈜우성정공, ㈜이슬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채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27~45세</p> <p>의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6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휘산로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